

# 뉴욕장신 뉴스레터



제 5 호  
2014년 12월 11일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KPCA,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NY)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Tel : 201-660-7778 Fax : 201-660-7779 홈페이지 <http://www.nypts.org>

학장 유재도 박사 / 학감 이기백 박사 / 총무처장 임선순 목사

〈Greetings 성탄절과 새해에 드리는 인사〉

“즐거운 성탄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구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리마다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내립니다!  
उन 전할 때 마다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함께 계셨던 주님!  
탄탄한 길에서도 거친 길에서도 함께 계셨던 주님!  
과정마다 늘 새 힘을 주시고 함께 계셨던 주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망망대해를 향하여 다시 나아가게 하소서!  
찬송을 날마다 힘차게 부르게 하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해처럼 별처럼 빛나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



2014년 12월 11일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을 섬기는 종들  
유재도 목사, 이기백 목사, 임선순 목사 일동

#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07:1-9)



학장 유재도 박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막 시작된 겨울을 보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오늘날 무엇이 가득합니까? 세상에 가득한 것은 온갖 사고, 자연재해, 경제적인 위기, 스트레스, 질병, 중독, 전염병, 테러, 싸움,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걱정, 불안, 절망, 자포자기, 원망, 불신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은 올 한 해를 거의 다보내고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시편 107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소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 잡혀야 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구원을 받고 사명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여야 합니까?

##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여야 합니다.

1절 -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노만 빈센트 필 목사는 매일 이렇게 외치라고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God is with us),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God is helping us),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God is guiding us).”**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 둘째, 우리는 구원 받은 것을 감사하여야 합니다.

2절 - “여호와와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시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안개와 같고, 풀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믿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네 가지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시입니다. 즉 광야에서, 포로에서, 병에서, 바다의 풍랑에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날마다 받은 구원을 감사하여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 107:1)**

**셋째,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감사하여야 합니다.**

6절 -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지난 일 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저도 지난 일 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신학교와 범사를 놓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매일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 더욱 기뻐하십니다.

**넷째,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여야 합니다.**

7절 -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라는 곳은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온갖 독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하루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보도가 되는 뉴스를 보면 사람은 어디에 살든지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음 날, 다음 시간에 일어날 일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질그릇같이 연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일 년을 뒤돌아 보십시오. 올 한 해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심을 감사하여야 합니다.**

9절 -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넓은 땅에서 살면서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일하며, 공부하며,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구의 수많은 나라들과 비교하여 볼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가을에 많은 아름다운 나무와 낙엽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널려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을 방문하신 어느 목사님이 “여기가 천국이구만!”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감사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교수소개



**학장 유재도 교수**  
(교육신학)



**학감 이기백 교수**  
(실천신학)



**총무처장 임선순 교수**  
(역사신학)



**김경희 교수**  
(신약신학)



**김건철 교수**  
(선교신학)



**김삼천 교수**  
(구약신학)



**김유태 교수**  
(신약신학)



**김윤권 교수**  
(구약신학)



**김종훈 교수**  
(실천신학)



**김희건 교수**  
(조직신학)



**민경수 교수**  
(실천신학)



**소기범 교수**  
(영성신학)



**손안젤라 교수**  
(상담신학)



**전광성 교수**  
(구약신학)



**백성철 교수**  
(아비장 분교)

김건철 교수	Boston University (Th.D. can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Th.M.) 영남대(B.A.)
김경희 교수	장로회신학대학원(Th.D., Th.M., M.Div.) 이화여자대학(M.A.) 서울대(B.A.)
김삼천 교수	Canada Christian College(D.Min.)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숭실대(B.A.)
김유태 교수	Drew University (Ph.D.) 장로회신학대학원 (M.Div.) 연세대 (B.A.)
김윤권 교수	장로회신학대학원(Th.D cand. M.Div.) 연세대(Th.M. B.A.)
김종훈 교수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D. Min.)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M.Div.) 계명대 (B.A.)
김희건 교수	Drew University (Ph.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서울대(B.A.)
민경수 교수	Assemblies of God Theological Seminary(D.Min., M.Div.) 서울대(M.A., B.A.)
소기범 교수	Chicago Theological Seminary(Ph.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숭실대(B.A.)
손안젤라 교수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h.D., Th.M., M.Div.) Drew 신학교수
유재도 교수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Th.M) New Brunswick Seminary(M.Div.) 장신대 (B.Th.)
이기백 교수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D.Min.)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계명대(B.A.)
임선순 교수	뉴욕장로회신학대원 (Th.M., M.Div.) 연세행정대학원(M.P.A), 성균관대 (B.A.)
전광성 교수	영국 University of St. Andrew(Ph.D.) New Brunswick Seminary(M.Div.) 연세대(B.A.)

## 뉴욕 장신 학술 세미나 성료!

지난 8월 24일(주일) 저녁, 뉴욕장신대(뉴저지하베스트교회)에서 본교가 주최하는 '뉴욕장신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한국 장로회신학원 대학원장 임성빈교수와 필그림교회 양춘길목사를 강사로 초청했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양춘길 목사는 '이민교회의 현재와 미래'의 주제로 강연하면서 작금의 이민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세감소와 교회의 내분, 목회자와 평신도의 갈등, 수평이동에 의한 성장, 2세들의 지속적인 Silent Exodus 등을 꼽았다. 양 목사는 또한 "교회의 진정한 회복과 활성화는 위기상황을 정직하고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이민교회의 내일을 위한 제안으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서의 본질적 사명회복,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교회간의 연합과 협력, 건강한 영적리더십의 회복과 평신도 사역 등을 제안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뉴욕 장신대 관계자 및 세미나 강사(양춘길 목사, 임성빈 교수)〉

이해 등단한 한국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장 임성빈 교수는 한국의 종교인구별 20년간의 추이 자료를 제시하고 한국의 4대 종교중에서 불교, 천주교와 원불교는 모두 상승했으나 오직 개신교만 소폭 하락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묻는 일련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고 2010년 기준, 한국개신교회의 신뢰도는 17.6%로 전년대비 1.5% 하락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48.4%로서 전년 33.5%에 비하여 14.9%나 크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했다. 임 원장은 문화통합을 위한 세대이해와 관련, 근대화/산업화 세대와 386/민주화세대 정보화/디지털세대로 구분하고 각 세대간의 특징과 가치관의 차이를 알기쉽게 설명해 큰 호평을 받았다.

임 원장은 위기극복을 위한 리더십으로서 Integrity(인격), Competence(능력), Vision(비전)을 제안했고 위기극복을 위한 리더십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을 제시했다. 임 원장은 특히 교회 내에서 근대화/산업화세대인 장로, 집사 등의 지도자들이 젊은 세대인 디지털세대를 사랑으로 끌어 안는 것만이 세대간의 문화통합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문화선교와 세대통합의 리더십'의 소주제로 강의한 임성빈 교수는 장신대 문화선교연구원 원장이며 장신대에서 학생들에게 인기있고 크게 주목받고 있는 학자이며 행정가로 알려졌다.

학장 유재도 박사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학장 취임식 때 밝혔던 학장취임 포부 중의 하나다. 오늘 참석한 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 지속적으로 학술세미나를 마련할 생각이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학장 유재도 교수가 기도 및 인사로 시작했고 학감 이기백 교수가 강사소개를, 총무처장 임선순 교수가 광고를 맡았고 뉴저지장로성가단이 특별 출연해 아름다운 찬양을 노래했고 동문회장 신상필 목사가 헌금기도, 해외한인장로회 부총회장 김종훈 목사가 축도했다.

# 뉴욕 장신 동문 동향 및 소식

## 조태성, 박성하, 폴 이 동문 목사 임직식 성료

본교 동문인 박성하, 조태성 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았다. 해외한인장로회 제51회 뉴욕노회 임시노회에서 10월 19일(주일) 오후 뉴욕예일장로교회에서 열린 목사안수 예식에서 안수받은 두 사람은 현재 뉴욕예일장로교회 전도사시무하고 있다.

목사안수예식은 인도 신상필 목사(부노회장), 기도 최호섭 목사(서기), 찬양 찬양대(예일교회), 설교 부노회장 신상필 목사 "예수그리스도의 전도인", 안수자 소개 최호섭 목사, 서약 노회장, 안수기도/약수례 안수위원, 선포/성의착의식/기념품 증정 노회장, 축가 테너 신윤수, 권면 김종훈 목사(KPCA부총회장), 축사 임선순 목사(전직 노회장), 축가 케리그마 중창단, 답사 박성하 목사, 인사 및 광고 최호섭 목사, 축도 조태성 목사의 순으로 진행했다.

부노회장 신상필 목사는 목사로 임직받는 두 전도사에게 "목사는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잘라 말하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바울같은 전도인이 되어 엘리야에게 함께 했던 성령님과 함께 하여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되라"고 강조했다.

두 전도사의 담임 김종훈 목사는 3M을 말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Message(메세지)를 전하고 성경의 Method(방법)를 통해서, 머리보다는 사랑의 Motivation(동기)로 사역하는 목사가 되라"고 권면했다. 김 목사는 "목사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10장의 성경을 읽어야 한다. 1/10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총무처장 임선순 목사는 축사에서 "목사로 임직받은 것과 KPCA 소속의 신학교에서 공부해 KPCA목사가 된 것, 예일장로교회에서 김종훈 목사로부터 배우고 임직받은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박성하 목사는 답사를 전하며 "김종훈 담임목사님과 선배목사님들, 교회와 성도, 가족 친지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이제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옷자락 잡고 더욱 더 섬기며 나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펼쳤다. 함께 안수받은 조태성 목사의 축도로 예식을 마쳤다.

한편 2014년 11월 2일(주일)에 컴벌랜드 장로교단 (Cumberland Presbyterian Church)에서 31회 동문인 폴이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폴이 목사는 뉴저지 펄그림교회( 담임: 양춘길목사)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목회 훈련을 받았으며 PSALT NK 선교단체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지금은 허그미션(HUG MISSION) 선교단체 대표로 섬기고 있다.



<뉴욕 노회 관계자 및 목사 임직자들>

## 제 31회 졸업생 구정모 전도사 목사고시 합격

본교 제31회 졸업생인, 구정모 동문(교역학 석사, M.Div.) 은 지난 8월 5일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치뤄진 2014년 제39회 해외한인장로회 목사고시에 합격하였다.

구 동문은 "이민교회 회복과 미래 대안은 KM 에 있다" 는 졸업논문으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는데, 이민 1세대와 2세대를 이어가는 목회를 통하여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에 비전을 갖고 헌신하겠다고 하였다.

구정모 동문은 현재 뉴저지에 소재한 땅끝교회 (유재도 목사 시무)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으며, 2015년에 받게될 목사안수를 위한 준비로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다고 한다.

## 제 31회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원 졸업생들 노력하고 연구한 결실들인 논문

졸업생	논문제목
구정모 전도사	"이민교회 회복과 미래에 대안은 KM에 있다" (언어적 측면에서 본 한국어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김현미 전도사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 (고린도전서 8:1-11의 약한 자와 강한 자를 중심으로)
박대호 전도사	"사도요한에 의해 계시된 현대의 교회상" (요한계시록 2~3장을 통해)
이경세 목사	"장·단기적인 교회 성장의 관점에서 본 전통예배와 현대예배 비교"
이정희 전도사	"해결중심 상담법에 의한 목회적 돌봄" (교회 공동체 안에 사역의 필요성)
정신범 전도사	"마태의 포도원 비유의 연구(마태복음 20:1-16)" (보편적 구원론을 통해서)
현윤이 전도사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의 고찰과 영적의미"

## 뉴욕 장신대학(원) 재정정보고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은 학교 발전을 위한 후원기금을 모읍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의 기도와 동참을 바랍니다. "Pay to the order of N Y P T S "

### 학교 후원기금

번호	헌금하신 분	금 액	헌금일자
1-21	소 계	\$ 34,500.00	6-15-14까지
17	김정화(한국은행 이사)	1,000.00	8-28-14
18	겨자씨 선교회(김삼천 교수)	500.00	9-2-14
19	예일교회(김종훈 목사)	2,000.00	9-25-14
20	한기하 장로	1,000.00	9-25-14
21	임선순 교수	2,000.00	10-2-14
22	정선희 전도사	5,000.00	10-2-14
23	뉴욕장신 동문회 장학금	2,500.00	10-2-14
24	유재도 학장 후원금	2,000.00	10-7-14
25	이영환 장로(서울)	1,000.00	11-25-14

